광주 12/18℃ 목포 13/17℃ 여수 14/18℃

# 光州日報

단기 4343년 (음력 4월 12일)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18682호 1판 2010년 5월 25일 화요일

### 육군-광주시 불발탄 제거 갈등

# 어등산 개발 또 중단

### 첨단2산단도 차질

민자사업자의 경영난으로 진통을 거듭해온 광주시의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또 중단됐다. 이번에는 육군보병학교가 안전보장을 요구하며 불발탄 제거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등산 공사현장에서 나온 흙으로 저지대를 매립해온 첨단산단 2단계 조성공사로도 불똥이 튀었다.

24일 광주시와 광주시도시공사에 따르면, 육군보병학교 어등산 불발탄 제거팀은 최근 "골프장 조성공사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혹시 남아 있는 불발탄으로 인해 사고가 날 위험이 있다."라며 현장에서 철수했다. 보병학교는 대신 ▲어등산 관광단지 공사현장을 군이 통제할 것 ▲군에서 설정한 안전지역 외에서 사고발생 시 광주시와 광주시도시공사가 책임질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서를 요구했다. 보병학교는 협약서가 체결될 때까지 불발탄 제거를 전면 중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오는 2012년 완공예정인 어등산 골프장 조성공사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나온 흙을 활용해 진행되고 있는 첨단산업단지 2단계 조성공사도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

이처럼 불발탄 문제가 다시 부각된 것은 지표면에 가까운 불발탄은 92% 정도가 제거됐지만 땅 속에 묻혀있는 불발탄의 개수를 측정하기 어려운데다, 2012년으로 예정된 완공기한에 쫓겨 불발탄 제거와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보병학교 관계자는 "지표와 가까운 곳의 불발탄은 상당부분 제거됐다고 하지만 불발탄 제거와 골프장 조성공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언제든 폭발 사고가 날 수 있다."라며 "광주시와 광주시도시공사에 공사현장 관리권과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협약서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호남예술제 광양 꿈나무들** 제55회 호남예술제 광양대회(미술·작문)가 24일 광양 우산근린공원과 광양문화회관에서 열렸다. 700여명이 참여한 이번 대회는 광양 출신 매천 황현 선생의 순국 100년을 기념해 올해 처음 열렸다. /광양=최현배기자 choi@

보병학교 측은 협약만 체결되면 언제든 불발탄 제거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광주시와 광주시도시공사, 민자 사업자 등은 ▲불발탄 사고가 날 경우 민간이 전적으로 책임지기 어렵고 ▲공사가 크게 지연될 수 있다는 이유로 협약서 체결을 주저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난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어등산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사업자의 경영난과 불발탄 제거 문제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안전문제에 대해 책임을 분담하는 조건으로 육군보병학교와 협의를 계속해 조속히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은 광주시 광산구 운수동 어등산 일대 273만3000여 ㎡의 부지에 '빛과 예술의 테마파크'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역시 캡틴 박지성…월드컵 서광 비추다 ▶관련기사 18면

24일 일본 사이타마 스타디움에서 열린 한-일 축구대표팀 평가전에서 한국팀 주장 박지성이 일본 선수들의 밀집 수비를 뚫고 선제골을 넣고 있다. 한국은 경기 종료 1분을 앞두고 박주영이 페널티킥을 성공시켜 2 대 0으로 일본을 완파했다. /연합뉴스

# "北 무력도발땐 즉각 자위권 발동"

### 이대통령 천안함 담화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천안함 침몰 사태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에서 "앞으로 (북한이) 우리의 영해, 영공, 영토를 무력 침범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앞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적극적 억제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3·5면〉

정부도 ▲우리 해역 내 북한 선박 운항금지▲남북교역 중단▲방북 불허▲개성공단 축소운영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회부 등 천안함 후속 대응조치를 발표했다.

| 천안함 주요 대응조치 |
|---|
| 北선박 통항 불허 |
| 남북교역 중단 |
| UN안보리 회부 |
| 대북 심리전 방송 |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행한 담화에서 "북한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앞에 사과하고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즉각 처벌해야 한다"며 "이것은 북한이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기본적 책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나는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단호하게 조처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천안함 침몰은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도발이다. 천안함을 침몰시키고 고귀한 우리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이 상황에서 더 이상의 교류, 협력은 무의미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또 "북한은 '천안함 사태'로 유엔헌장을 위반하고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 등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기존 합의를 깨뜨렸다"며 "정부는 관련국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 사안을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 회부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유명환 외교통상, 김태영 국방, 현인택 통일장관도 이날 정부종합청사에서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우리 해군이 주관하는 PSI 역내 해상차단훈련을 하반기 중 실시하고 올해 9월 호주가 주관하는 역외 해상차단훈련에도 참가하기로 했다. 또 가까운 시일 내에 한미 연합 대잠수함 훈련도 실시하고 남북합의에 따라 지난 6년간 중단된 대북 심리전을 재개하기로 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北 "심리전 방송 재개땐 조준사격 격파"

북한이 24일 우리 정부의 대북 심리전 방송이 재개되면 확성기 등을 조준 사격해 격파하겠다고 위협했다. 북한은 또 천안함 사태에 대한 남측 조치에 대해 실제적 행동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협박했다.

북한 인민군 전선중부지구사령관은 '남조선의 역적패당에게 보내는 공개경고장'을 통해 "(남한이) 심리전 수단을 새로 설치할 경우 그것을 없애버리기 위한 직접조준 격파사격이 개시될 것"이라면서 "만약 우리의 정정당당한 대응에 도전해 나선다면 도발의 근원을 없애버리기 위한 보다 강한 물리적 타격이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이날 천안함 사태에 대한 남측의 대응조치를 "북침전쟁의 불집을 터트리려는 또 하나의 엄중한 군사적 도발행위"라고 반발했다. /연합뉴스